

싱가폴한인교회 선교정책

- 비전과 규정 / 2015년 3월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I. 들어가는 말

'싱가폴한인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한인교회는, (1) 비기독교국가로 둘러 싸여있는 교회의 중심지라는 점, (2) 역량 있고 훈련된 성도들이 많다는 점, (3) 선교적 열정과 헌신이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점에서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에 자주 비유되어 왔다. 현대의 안디옥교회로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면, 주변국 상황이나 한국 선교의 발전과 역량이나 최근의 인구 동향을 볼 때, 싱가포르한인교회가 이제 지난날의 선교를 더욱 가다듬음과 동시에 미래를 단·중·장기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선교를 구상하고 현실화할 때이다. 지금은 싱가포르한인교회 선교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카이로스(kairos)'(하나님의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싱가포르한인교회의 선교를 회고하고 전망함으로써 선교 비전을 부각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II. 싱가포르한인교회 선교의 과거와 미래

1. 싱가포르한인교회 선교의 과거와 현재- "두루 선교"

지난 29년 간(1980년-2009년)의 싱가포르한인교회의 선교는 '두루 선교(Thru Mission)'라는 말로 묶어 낼 수 있다.¹ 그 결과 2008년까지 네 명의 '주후원'² 선교사를 아시아의 네 지역 - 인도네시아 바탐, 인도 첸나이, 캄보디아 바땀방, 말레이시아 꾸칭-에 파송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고, 2009년 5월24일에 두 명의 선교사를 사라왁과 중국 북부에 파송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협동선교사³로 지원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역에 협력해 왔다. 또한 해양선교회를 설립하여 연 6만 불 정도를 후원하였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규모는 해외 한인교회의 선교사역으로서는 작지 않은 것이기에 교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이상의 선교사역을 손중철 선교사(1981년-2004년 싱가포르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현 원로목사)는 '두루 선교'라 칭했다.

¹ 본고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술된다. 지난 29년간의 선교 내역은 '교회약사'를 참조하라. 참고로, '두루 선교'의 바탕이 되었던 '두루선교회'를 언급한다. '두루선교회'는 손중철 선교사(싱가폴한인교회 원로목사)를 중심으로 1992년 9월 4일 창립되었으며, 자원하는 선교사들이 서로의 친교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두루선교회 회칙 제3조)이다.

² '주후원'의 의미는 VIII.1.2항 및 VIII.2.2항을 참조하라. 주후원 파송 선교사: 김부열(1991년-현재; 인니 바탐), 임하영(2001년-현재; 인도 첸나이), 이남순(2004년-2012년; 캄보디아 바땀방), 서덕선(2004년-2008년; 말레이시아 사라왁), Ngau Ajang(2009.5.24-현재; 말레이시아 사라왁), 김도은(2009.5.24-현재; 중국 북부).

³ '협동선교사'의 의미는 '싱가폴한인교회 선교정책' VII.1.3항 및 VIII.1.3&4항을 참조하라. 2009년 현재 협동선교사의 수는 28명이다.

2. 싱가포르인교회 선교의 미래 - "축(hub)의 선교"

2.1. '두루'의 개념전환 - '지역적' 의미(현장)에서 '내용적' 의미(축)로

지금까지 '두루 선교'의 '두루'는, 현장선교가 중심이 된 지역적인 개념으로서, '곳곳에', '지역 마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정황은 '두루'의 지역적 개념에서 내용적 개념으로의 의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두루'의 내용적 개념이란 '골고루', '보편적으로'라는 뜻을 가진다. '두루'의 지역적 개념에서 내용적 개념으로의 전환은, 현장선교가 가지는 원천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에 '골고루'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교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싱가포르인교회에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The Hub of Mission in Asia)'이라는 비전을 주신 것이다. 싱가포르인교회 선교의 과거를 '두루 선교'라 한다면, 그 미래의 선교는 '축의 선교Hub Mission'라 할 수 있다.

2.2. "중심축(Hub)"의 개념

중심축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해보자. 축은 바퀴를 전제한다. 바퀴에는 땅에 직접 맞는 타이어(현장선교)가 있고, 타이어의 각 부분을 엮어내는 바퀴살(네트워크 선교)이 있고, 바퀴가 제 역할을 감당토록 하는 힘의 근원인 바퀴축(축의 선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상대적으로 타이어에 비중을 두어왔다. 이제는 바퀴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퀴축에 비중을 두어, 한국선교가 온전한 바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전진하도록 해야 할 때이고, 이러한 선교의 선봉에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인교회를 세우셨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유의할 것은, 타이어와 바퀴살과 바퀴축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각은 오히려 서로를 요청한다. 축의 선교는 현장선교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펼쳐온 현장선교를 더욱 성숙케 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제 한국 선교가 더 포괄적이고 온전한 선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선교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한국 교회의 현장선교, 나아가 세계 교회의 아시아 현장선교를 하나로 묶어내는 선교지도력(leadership) 형성이 필요하다. 묶어내는 작업이 '네트워크 선교'(바퀴살 구축)이고, 선교지도력 형성은 '축의 선교'의 근간이 된다. 싱가포르인교회가 지향하는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으로서의 선교는, 싱가포르인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선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현장선교를 하나로 묶어내는 선교지도력(leadership)을 형성함으로써 선교라는 바퀴의 축과 살과 타이어가 잘 균형 잡힌 선교를 지향한다.

2.3. 왜 '아시아 선교'인가?

왜 '동남아시아 선교의 중심축', 혹은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아니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인가? 싱가포르인교회가 직접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이다. 현재의 사역으로만 보면, '동남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협동선교사의 광범위한 분포와 미래의 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동선

교사는 동남아시아 이외에도 2015년 3월 현재, 인도에 두 명, 인도네시아에 여섯 명, 중국에 다섯 명, 캄보디아에 세 명, 케냐에 두명, 그리고 몽골과 키르기스스탄에 각각 한 명이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싱가포르인교회의 선교는 동남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전체를 내다보며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을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삼되, '땅끝까지' 뻗어 나아가는 선교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기왕에 비전을 '세계선교의 중심축'으로 가질 수는 없을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 세계선교의 중심축이 되려면 세계를 광범위하게 구분하여 묶어서 중심축을 여럿 세우고, 그 중심축들을 관할할 수 있는 큰 중심축(meta-hub), 즉 중심축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기구 혹은 국제선교신학기구에서 추진할 일이다. 우리 교회는 추후 그러한 일에 참여자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4.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선교된 지 120여년 만에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의 자리에 들어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교에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함이 확실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약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적인 선교지도력 분야이다. 국제적인 선교 지도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선교계는 그 영향력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구 신학자들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제는 제3세계로 넘어갔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선교의 틀과 신학은 여전히 서구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선교의 하드웨어는 넘겨주는 추세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서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선교대국이라고 부추겨지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국제 선교계를 주도하는 한국출신 지도자가 부족한 점과, 세계 선교계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함에도 아직 보완의 속도가 느리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선교 잡지에 한국인의 글이 드물고, 지명도가 있는 선교잡지 발간 등이 미미한 실정인데, 이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 일을 우리 싱가포르인교회가 축의 선교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이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한다. 그저 지도자의 자리가 좋아서, 혹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심지어 지도력을 지배력으로 착각하여,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구는 근대시대 이후 세계를 향하여 과도한 지도력 내지 지배력을 펼쳐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몸과 지체의 구성이 되어야 하고,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몸을 주관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각 민족과 나라는 몸을 이루는 지체이어야 한다. 한 지체를 예로 들어 손이 몸의 주인이요 머리 역할을 하면 그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지체의 과도한 지도력은 과도한 지배력으로 변질되어 전체로서의 몸을 손상할 수 있는데, 서구가 주도했던 선교계에서도 그런 현상이있다. 그것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교'이다.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의 비전은, 타이어와 살과 축이 균형 잡힌 선교를 지향하되, 축의 관점에서 아시아 선교를 인도하는 소리를 아시아인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규모와 재정과 열정에 축복받은 한국 선교계가 이 일에 공헌하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고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싱가포르한국교회가 한 알의 밀알이 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전은 싱가포르한국교회가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겸손히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현지 교회들과 밀접한 동역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뜻있는 한국 교회들, 그리고 해외 한인교회들과 밀접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서구 교회를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다. 서구 교회의 과도한 지도력을 조정하여 서로가 지체로서의 명실상부한 협력자가 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5. 왜 싱가포르한국교회인가?

우리는 우리 싱가포르한국교회가 '축의 선교' 비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여건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거론 해 본다. 싱가포르한국교회는 (1)영적, 지적, 물질적 역량을 갖춘 한국 교회⁴ 출신의 지도자와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2)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centre)⁵인 싱가포르에 위치하여 인근 피선교국과의 왕래가 쉽다. (3)역시 위치적 중심에서 파생되는 장점인데, 많은 국제적인 선교단체 본부들이 있는 관계로 그들과 쉽게 협력할 위치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4)또한 선교지에 일부러 가지 않아도 피선교국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거나⁶ 왕래하고 있다. (5)싱가포르한국교회에는 교인 구성 상 국제어가 가능하며 국제적인 교류에 익숙한 성도가 많다. (6)싱가포르한국교회에는 선교를 위한 주님의 지상위임령(마28:19-20)에 순종할 신앙과 자세를 갖춘 성도가 많다. (7)최근 몇 년간 교회의 규모와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축의 선교'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축의 선교는 현장선교와는 달리, 교회의 규모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선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한국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를 두렵고 떨리는 마

⁴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선교 지향적이며(전통적 선교의 관점에서 서구가 부족한 면), 영적 지적 물질적 균형(일반적으로 제3세계가 부족한 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심 축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다. 한국 교회는 첫째, 위치적으로 피선교국과 멀리 있어 피선교국과 소통이 어렵고 현장 감각이 떨어진다. 둘째, 국제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하며, 최근 국제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그들을 동원하는 중심점과 결집력이 떨어진다. 셋째, 단일민족 전통으로 인해 타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고 교제한 경험이 적다. 넷째, 전문 인력(예: 교수, 회자 등)들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풍토에 따라 모두 업무에 바빠서 실질적으로 '축으로서의 선교' 사역에 시간과 힘을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⁵ 중심(centre)과 중심축(hub)은 다르다. 중심은 위치적인 개념이라면, 중심축은 기능적인 개념이다. 물론 중심축은 대부분 중심에 위치한다. 하지만, 중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중심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축의 핵심 기준은 주변에 두루 즉 골고루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의 근원이 되는가이다.

⁶ 이것이 싱가포르한국교회의 중요한 선교사역 중의 하나인 RUIS(Reaching the Unreached In Singapore)선교의 장이 되는 이유이다. III장(싱가포르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선교 양태)을 참조하라.

음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인교회가 축의 선교 비전 구현에 정성을 다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을 확신한다.

요약하면, 싱가포르인교회의 선교는,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이라는 비전 아래, (1)선교라는 바퀴의 타이어에 해당하는 현장선교와 (2)바퀴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선교와 (3)바퀴축에 해당하는, 영성과 선교신학이 바탕이 된, 선교지도력을 균형 있게 갖춘 선교, 그리하여 아시아의 시대적 요청과 하나님의 선교역사에 소임을 다하는 선교를 지향한다.

III. 싱가포르인교회의 구체적인 선교 양태

1. 지속적인 현장선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현재 4개국(인도네시아, 인도, 동말레이시아, 중국)에 주후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20명의 협동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의 주된 내용은 현장 선교이다. 그동안, 교회건축지원, 학교 건축 및 운영 지원, 미자립교회(목회자) 재정지원, 신학생 지원을 해왔고, 싱가포르 내에서는 해양선교회를 세워 선원을 보살피고 전도하는 선교사역을 펼쳐왔다. 이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숙을 지향해야 한다. 현장선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1)싱가포르인교회(선교부 및 성도)와 선교사와 현지지도자들과 한층 더 밀접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2)서로 선교지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선교가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일 사역을 놓고 후원교회와 선교사와 현지지도자들과 피선교인들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진일보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3)우리교회의 주후원 파송 선교사들과 주후원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철저히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우리 교회와 함께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협동선교사들은 협동 사역에 관한 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선교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일단, 선교정책을 준수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선교부가 수고해야 할 단기적인 사역중의 하나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은, 현장선교를 위해 '현지인 선교사'⁷를 적극적으로 파송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이다. 현지인 선교사는 피선교지 문화권 출신 선교사로서 본 교회와의 계약에 의해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현장에 따라 한인선교사보다 현지인이 더 적절히 현장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지인 선교사는 현장선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선교와 축의 선교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데에 유리한 점도 있다.

2. 축의 선교

⁷ VII.1.3.을 참조하라.

축의 선교(바퀴축)는 네트워크 선교(바퀴살)를 자연스레 포괄한다.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축의 선교를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선교의 언급은 생략하며, 축의 선교를 일단 제목 위주로 기술한다. 각 제목마다 구체적인 전략과 조직과 방법이 추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3세계 신학생 장학 지원을 확대하되 아시아 학생들에게 집중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신학생 장학지원은 지금까지 싱가포르인교회가 해오던 사역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연결에 미흡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의 선교 바퀴살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장학지원 대상자 인선 시 우리 교회 비전에 합당한 학생을 선택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제3세계 신학생 신학회 결성과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 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것은 일석이조이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2개의 신학대학(TTC, SBC)에만 400여 명의 외국인 신학생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다. 이들과 미리부터 영적, 지적으로 관계를 맺어 지원하고 지도하며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싱가포르에서 신학 유학생은 물론 일반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는 선교의 큰 장이다. 더불어 유학생들의 가족을 돌보는 선교도 필요하다. 서구의 나라들이 외국인 학생 가족을 돌보는 선교단체를 두어 사역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교회들과 동역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아시아 피선교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에 연구비지원⁸ 및 연구결과물(논문) 중심의 컨퍼런스 개최와 그 결과를 정기 선교잡지로 발간하여 세계 우수 대학과 선교기관에 보급하는 일이다. 이 사역은 축의 선교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외국 우수 대학 도서관에 아시아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며 특히 한국의 지도자의 글(영문)은 희귀한 현실이다. 이것은 실력이나 역량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축의 선교 관점에서 이 사역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 각주 4항에서 살펴본 한국 교회의 부족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사역은 2010년 부터 '축의 선교'라는 이름 아래 본격적으로 착수 되었으며, 일단 인니 말레이어 지역 신학대학장들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2011년에는 인니 말레이어 권, 2011년 영어권(싱가폴,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호주), 2012년 한국과 몽골 신학자들이 모여 학회를 개최하므로써 총 3회의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선교잡지는 인니 말레이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2011년 창간되었다. 언어는 영어를 필수 언어로 하며, 지역어 전문 혹은 요약물 병기함으로써 잡지의 국제성을 살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컨퍼런스는 서구적 학문성(머리)과 동양적 감수성(가슴)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통해 동양의 지도자들이 머리의 생각을 나눔과 동시에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⁸ 인도네시아 학계 지도자들과 협의한 결과 1편의 논문 당 상1,500불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면, 충분한 격려가 될 것이라는 점에 중지를 모았다. 이것은 영어 번역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가슴으로 교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 머리와 가슴을 통전적으로 아우르는 성향을 가진 한민족의 공헌이 기대된다.

다섯째, 선교의 네트워크를 위한 아시아 교계 지도자, 선교적 교회의 담임목사 포럼 운영이 필요하다.⁹ 이 네트워크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훈련된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목양하고 지도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민족과 교회가 함께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섯째, 싱가포르 국내외의 교회연합체, 선교단체, 봉사단체들과의 협력 사역을 꼽을 수 있다.¹⁰ 우선 이러한 단체의 회원권을 가지는 것을 필두로, 부분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분야들(예: 해양선교 등)을 축의 선교의 정신에 합당하게 개발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상, 축의 선교 의식과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역의 유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 선교의 분야는 축의 선교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축의 선교의 분야는 이상의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추가될 수 있다.

3. RUIS 선교 - 싱가포르 안에서의 미전도종족 전도하기

3.1. 'RUIS'(루이스)선교의 배경과 의미

위에서 기술한 '축의 선교' 사역은 다소 전문적이어서 많은 성도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반면에, 'RUIS'는 많은 교인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통전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이다. 'RUIS'는 Reaching the Unreached in Singapore의 약자로 '싱가포르안에서의 미전도종족(unreached) 전도하기'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싱가포르한인교회가 싱가포르에서 행할 주요 선교사역이 될 것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

⁹ 이 네트워크는 현지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되, 비전을 공유하는 한인지도자도 포함한다.

¹⁰ 현재는 OMF International, YWAM International, ACTI, AIT를 각각 연 상3,600불 후원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후원 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데, 기도 협력과 그들의 노하우를 가르침 받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 봉사차원에서는 싱가포르 봉사기관들(양로원, A&G Home)과 소규모로 협력하고 있다.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에 인구를 650만 정도로 늘린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증가되는 인구는 대부분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라는 것이고,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미전도종족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2014년 정부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 인구가 546만 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 외국인 비율이 29%에 이른다. 여기서 외국인이라 함은 시민권자(citizen)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를 제외한 싱가포르 체류자를 의미한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인구 증가율이 미미한 것과 인구 관련 정부목표(급속 팽창)를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외국인들 역시 대부분이 바로 피선교국 출신들 즉 미전도종족이라는 점에서 'RUIS 선교'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이다.

현재, 피선교국(선교대상국) 대부분에서는 직접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들 나라에서 선교사역은 많은 경우 기신자들을 교육하는 일과 현지교회나 교단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이다. 인종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법적인 장벽 때문에 한국선교사가 피선교국인을 직접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일은 사실상 무척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터운 장벽을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해 주고 있고, 선교대상국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싱가포르의 특수 상황을 우리는 선교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2. 'RUIS'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

RUIS의 구체적인 선교대상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피선교국인 특히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신분과 직업은 아주 다양하다. 노동자¹¹, 가사도우미¹², 유학생¹³, 기술자, 전문직종사자 등이 있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¹¹ 싱가포르에는 인근 아시아 국가들(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 온다. 일예를 들어, 인도인 노동자 수는 2008년에 5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에 97% 이상이 비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심리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인도인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영적 황금어장이다. 싱가포르는 중견 인도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해야 할 선교지이다. 물론 인도인 사역자들과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인도 교회개척도 필요하다면 협력 해야 한다.

¹² 가사도우미(domestic worker)의 주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들이다. 인도네시아인 가사도우미(IDW=Indonesian Domestic Worker)는 2008년 현재 108,000명 정도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¹³ 유학생들은 대부분 피선교국의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제들이 많다. 중요한 선교대상이다.

RUIS 선교 사역은 (1)국가별 혹은 언어별, 직업별, 신분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이 사역들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단계를 뛰어 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한 두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다.

먼저, 사역의 예를 거론해 본다.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인 사역으로는 명절 잔치, 야유회, 체육대회, 의료 보건 봉사, 병원 심방, 이미용 봉사, 관광, 상담, 인터넷 무료 사용, 출입국 관련 업무 보조, 해외송금 등이 있다. 지속적인 사역으로는 영어 교육, 직업 훈련(컴퓨터 교육, 회계 교육), 성경공부, 예배, 찬양, 제자훈련 등이 있다. 나아가 공동체를 형성해 주고, 교회를 개척해 줄 수도 있다. 이제 사역의 단계를 개략해 보자.

첫째 단계는 옥토화 사역이다. 한시적인 단순 사역과 장기적인 복합 사역이 있다. 전자로서는, 저소득층 관광 주선 및 안내, 이발 및 미용, 밥퍼운동¹⁴, 의료, 상담 등이 있다. 후자로서는, 직업훈련반(영어, 컴퓨터, 사무처리 등)을 개설하여 선교대상자들을 섬기는 일이다.이 때 이들을 태신자¹⁵로 삼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섬기는 사역이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들의 마음 받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복음제시와 결신의 단계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제시하며 결신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은 전도폭발의 복음제시를 영어는 물론 대상자의 모국어(중국어, 인니어, 타밀어 등)로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지인선교사를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셋째는 제자훈련 단계이다. 제자훈련이 없는 결신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쉽게 이전 종교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는 네트워크 활용단계이다. 결신자 및 제자훈련 수료자가 본국으로 귀국 시 우리 교회와 네트워크를 가진 본국 교회에 소개하여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들이 건강한 전도자로 설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력이 미치도록 하는 사역이다.

옥토화 단계 시 직업훈련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돌봄은 타종교의 통전성(생활과 신앙과 직업이 통합적임)을 극복해내도록 돕기 위함이다. 독립할 수 있는 직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가 없는 결신자는 많은 경우 손쉽게 이전 종교생활로 돌아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통역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물론, 적절한 현지인 지도자를 초청하여 사역을 위탁하는 일도 긍정적으로 검토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현지인 지도자를 싱가포르로 청빙하여 싱가포르에 파송하는 특수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¹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당 심12-20불을 받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¹⁵ 태신자: 전도를 잉태와 출산의 과정으로 보고, 마음에 둔 전도대상자를 잉태 중인 잠재적인 신자로 보아 태신자라 부른다.

러한 파송을 현지의 지도력 있는 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다.

IV. 싱가포르인교회의 선교 전망

1. '집약된 선교지'로서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집약된 선교지' 혹은 '아시아 선교지의 축소판'이다. '축의 선교'를 위해서도, 'RUIS 선교'를 위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선교사들이 파송될 필요가 있는 선교지이다. 싱가포르에서의 선교는 다음 세 가지 개념을 가질 때에 발전적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1)축의 선교, (2) RUIS 선교, (3)집약된 선교지. 이 세 개념을 구현하는 싱가포르 선교는 그 자체가 동남아시아 선교가 될 것이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적으로 '선교회'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하여 활동할 때도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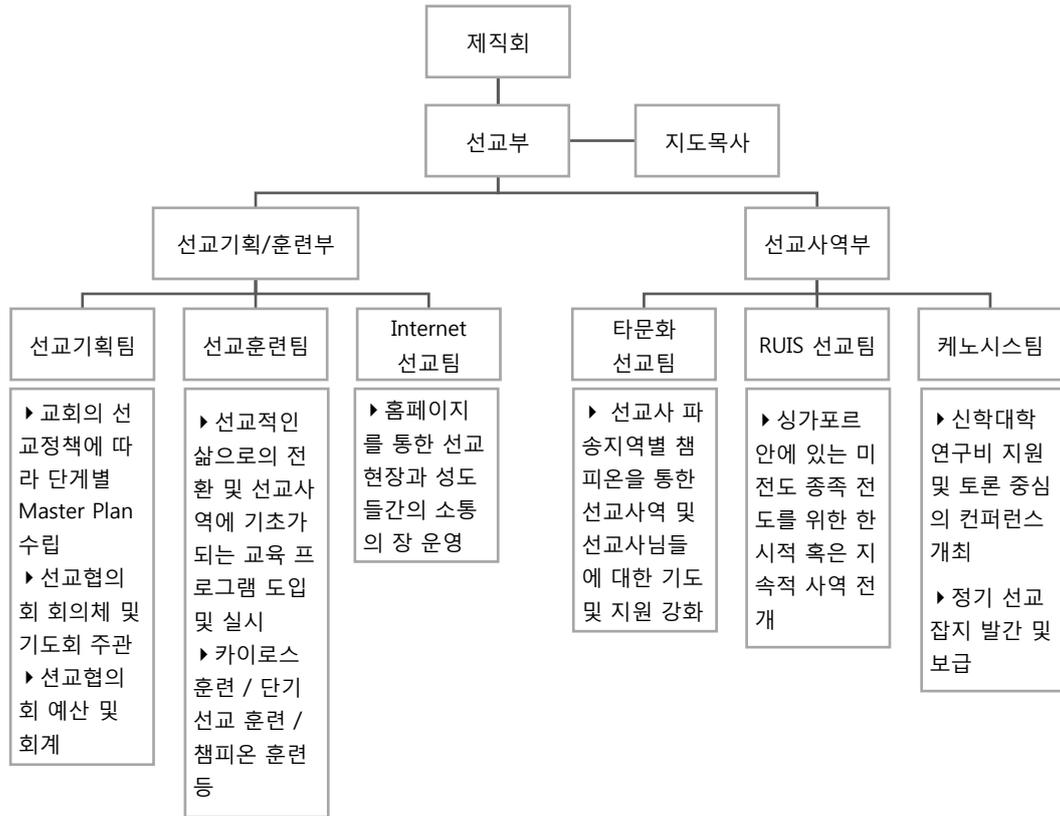
2. '축의 선교' 이후 - 케노시스 선교

'케노시스kenosis' 는 빌2:7절의 '자기 비움(self-emptying)'의 희랍어로서 신학용어이다. 위에서 언급된 현장선교는 물론 축의 선교까지도 보수 복음주의 노선 'Conservative Evangelical line'에 서 있다 이 노선을 넘어서는 선교 패러다임이 케노시스 선교이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얘기할 날도 오기를 소망한다.

V. 싱가포르인교회 선교의 조직

1. 싱가포르인교회의 선교 조직

싱가포르인교회의 대표적인 선교 조직은 제직부서 중의 '선교부'이다. 2010년 들어 보강개편된 선교협의회 조직은 지도목사, 협의회장 아래 선교기획훈련부(선교기획팀, 선교훈련팀, 인터넷선교팀)와 선교사역부(타문화권선교팀, RUIS사역팀, 케노시스팀)으로 구성된다.



2. 싱가포르인교회 선교협력기관

선교협력기관은 싱가포르인교회의 자치기관으로 남선교회, 제1, 제2, 제3, 제4 여전도회가 있다. 이들 기관은 싱가포르인교회의 선교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적 일치성을 전제한 가운데 자치성을 구현해야 한다.

3. 선교부 조직 보강 방향¹⁶

선교부 조직은 앞으로 전문성의 관점에서 분과위원회 및 훈련원 설치 등을 통하여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분간은 부와 팀의 정체성 확립과 기본적인 사역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교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교국/선교회'으로 확대 독립시키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를 '국'으로 확대 독립시킨다는 의미는, (1)우리 교회 사역 중에 선교에 큰 비중을

¹⁶ 이 3항은 2008년에 쓰인 것으로 전항에 소개한 협의회 체제(2010년부터 시행)를 통하여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 이 항을 그대로 살려 둔 것이다.

두어 집중한다는 것과 (2)지속적인 전문화를 꾀한다는 것,¹⁷ 그리고 (3)일관성을 위하여 '국'의 대표의 임기를 제직부서 부장과 달리 장기화한다는 것,¹⁸ (4) '국'의 대표를 장로로 한다는 것 등이다.

VI. 인사정책

선교사 인선과 지속적인 돌봄(care) 및 관리의 두 부분이 있다.

1. 인선

"인선은 신중히, 인선 후에는 신뢰 속에서"라는 큰 테두리를 가진다. 인선은 크게 '개인'과 '교회'라는 두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1.1. 개인적인 차원의 인선기준

개인적으로는 (1)인격과 (2)신앙과 (3)지식과 (4)수행능력과 (5)심신의 건강이라는 다섯 분야를 고려한다.

1.2. 교회적 차원의 인선기준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1)신학과 (2)비전과 (3)정책과 (4)사역의 방법과 내용에 전인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인선에 관한 상기 방향은 정규선교사나 협동선교사 모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선교사 파송 필요성 평가원칙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 때 그 사역의 필요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정규 장기 선교사는 현지선교사나 현지지도자가 감당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수한 사역이 있을 때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선교사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현지선교사나 현지지도자의 5-10배 정도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데, 파송 선교사가 현지선교사나 현지지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수행한다면 적절한 현금 사용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도력 사역과 협력사역 혹은 규모가 큰 현장사역에는 여전히 선교사 파송이 유효함도 주목해야 한다.

1.4. 인선 구비서류

¹⁷ 선교부 임원들은 전문훈련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¹⁸ 국 대표(명칭은 추후 논의)의 임기를 4-5년 정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4.1. 정규 선교사 인선 구비서류

(1)지원서 (2)이력서(국문,영문) (3)자기소개서(소명과 비전 포함 필수) (4)추천서 3통 (5)각종 이력증명서(자격증 포함) (6)호적등본 (7)주민등록등본 (8)가족사진 (9)전가족 건강진단서 (10)사역의 독자성 논의서: 현지선교사 및 현지지도자가 담당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수 사역임을 논하는,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담은 소논문 형식 (11)선교사훈련 평가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1.4.2. 협동선교사 인선 구비서류

(1)지원서 (2)이력서 (3)자기소개서(소명과 비전 포함 필수) (4)사역계획서 (5)추천서 2통(본 교회 전도사 및 평신도일 경우, 본교회 소정 양식¹⁹의 지도교역자 추천서와 부서장 평가서. 본 교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목사 평가서를 포함한 추천서와 당회서기 추천서 1통) (6)선교에 대한 준 논문 혹은 대학 리포트 수준의 글 (본 교회 사역자일 경우: 기 제출된 부서 및 교회 발전안²⁰)

1.5. 인선결의

규정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당회는 정기당회 시 검토한 후, 예비된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파송 혹은 지원을 결의한다. 예산이 초과될 경우, 다음 해의 우선 논의 혹은 우선지원으로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선교사훈련

선교사는 언어와 문화적응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훈련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정규 선교사로 파송한다. 선교사훈련은 자비를 원칙으로 하되,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훈련비를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선교사는 이 조항에서 예외이다.

1.7. 선교사 파송

1.7.1. 적절한 선교사훈련을 마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자를 당회가 인선하여 파송한다. 훈련비를 우리 교회가 지원했다라도 훈련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7.2. 단독후원²¹ 및 주후원 선교사는 본 교회에서 파송식을 가지며, 부분후원 선교사는 선교사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식을 가질 수 있다. 선교사훈련을 마치지 않은 자는 일정 목적을 가진 단기선교사로서 파송할 수 있다.

¹⁹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사역수행능력과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형식의 평가서이다.

²⁰ 본 교회의 교역자들은 소속 부서나 교회를 위한 발전안(A4 5쪽 이상)을 상시로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여러 번 제출할 수록 좋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에 의한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²¹ 후원의 종류는 VII.1항을 참조하라.

2. 돌봄 (구체안 미정)²²

2.1. 건강관리

주후원 선교사들을 위해 의료보험 가입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조치해야 한다.

2.2. 선교사 재교육

선교사 재교육은 안식년 중 교육과 필요시 단기교육, 학위를 위한 순회교육 참여 등이 있다.

2.3. 자녀교육

2.4. 사역지 재배치

사역지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적응치 못하여 더 이상의 사역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 사역지를 재배치한다. 이 때 필요한 이주비와 훈련비를 담당한다. 단, 이러한 지원은 단독후원 및 주후원 선교사로 제한한다.

2.5. 노후생활

단독후원 파송선교사는 퇴직금 등으로 노후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주후원 파송선교사일 경우, 노후 생활을 위하여 '선교사 후원회(후원자 연합회)'가 결정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도 참여한다.

VII. 선교사 복무규정

복무규정은 싱가포르인교회의 각종 선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복무규정과 다른 특별 예외조항은 반드시 선교사와의 개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자격과 구분

1.1. 선교사: 최소 5년 이상 시무를 약정한 싱가포르인교회 단독후원 내지 주후원 선교사로서 정규 선교사인 동시에 장기선교사를 의미한다. 선교사 초임 2년간은 수습선교사로서 교회가 지정한 선임선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합당한 선임선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본 교회의 선교목사의 지도를 초임 2년 간 받는다.

²² '선교사의 돌봄'이라는 주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큰 숙제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길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 1.2. 단기선교사: 본 교회가 부여한 일정 임무를, 본 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선교사. 선교비와 사역기간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 1.3. 협동선교사: 타 교회나 기관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싱가포르인교회의 부분후원 선교사.협동선교사는 선교사의 청원에 의한 당회의 결의가 없는 한, 사역 후원을 원칙으로 한다.
- 1.4. 현지인선교사: 피선교지 문화권 출신 선교사로서 본 교회와의 계약에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2. 선교사의 복무

- 2.1. 선교사의 소속: 선교사(단독후원 및 주후원 선교사)는 싱가포르인교회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 2.2. 선교보고: 선교사(단독 후원 및 주후원, 협동 선교사)는 매6개월마다 교회에 전자메일이나 서신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동선교사의 선교소식 전달은 선교소식지 분량조정과 선교사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선교부가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
- 2.3. 업무변경: 선교사는 업무변경 사항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사유서 혹은 사역계획서를 교회에 제출하여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4. 사역지변경: 사역지 변경은 선교국가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선교사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회의 선교정책에 의한 근본적인 검토 후에 교회의 결정에 의해 가능하다. 단, 교회의 선 결정이 있을 경우, 선교사와의 조정을 거쳐 사역지를 변경할 수 있다.
- 2.5. 해외출타: 선교사가 선교국 밖으로 나가게 될 때에는 사전에 교회에 알려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추인을 받는다.
- 2.6. 휴직: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서면으로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을 24개월로 하되, 휴직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아니하면 그 직위가 자동 상실된다.
- 2.7. 안식년
 - 2.7.1. 선교지에서 5년을 시무하면 1년을 안식년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하를 시무한 선교사에게는 안식년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7.2. 안식년 기간은 임지 출발일로부터 복귀일까지로 한다.
 - 2.7.3. 안식년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하며, 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2.7.4.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에 선교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되어야 하며, 그 조치 내용을 안식년 청원서에 명시한다.

- 2.7.5. 안식년 기간의 활동은 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2.7.6. 안식년 후 복무에 관하여 교회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차기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교사와 교회가 상호 서명한다.
- 2.7.7. 선교지를 떠나 본국(한국 등)으로의 교통편이 필요할 경우 당회에 요청할 수 있고 당회는 결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2.8. 선교사의 임기: 계약서에 의한 약정 기간을 임기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 2.9. 시무사임: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이 있다. 자의 사임은 선교사의 개인사정 상 더 이상 시무하기 어려울 때에 선교사의 청원에 의한 사임으로서, 사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전에 교회에 알려야 한다. 권고 사임은 선교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당회의 결의를 거쳐 교회가 선교사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것이다. 권고 사임은 사실 확인, 선교사의 소명, 당회의 결의를 거쳐 결의하며, 권고사임은 당회의결의 날짜부터 발효하나, 선교지 철수를 위한 재정배려를 할 수 있다.
- 2.10. 시무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65세의 12월 말로 하고, 선교지 사정과 선교사의 건강이 허락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무를 임시로 연장할 수 있다.
- 2.11. 사역평가: 보고서에 의한 평가와 임기말 평가가 있다. 평가는 정책 및 사역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위함을 주목적이고, 재계약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이 부목적이다
- 2.12. 사역격려: 선교사가 사역을 통해 공로가 지대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경우, 교회는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VIII. 후원 및 재정관리

1. 후원의 종류

- 1.1. 단독후원: 교회의 단독후원규정에 의해 선교사의 전체 생활비를 감당한다. 단독후원 선교사는 생활비를 위해서 타교회나 타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역을 목적으로 한 외부의 지원은 모두 사역비로 사용해야 하며, 사역비 보고는 규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비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교회가 후원하는 생활비 이외에 독지가의 자발적인 후원이 있을 때는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으며, 그 후원의 액수가 크거나 지속적인 경우는 본 교회의 단독후원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교회는 단독후원 총액을 지역과 사역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후원은 안식년 기간에도 적용된다. 본 교회의 후원기준은 예장(통합)의 후원기준을 반영토록 한다. 추후,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합의한 '한국교회 해외선교비 통일기준안'(부록 참조)을 지향하고자 한다.

- 1.2. 주후원: 선교사의 모든 생활비를 교회가 감당하지는 않지만, 생활비의 1/2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를 뜻한다. 주후원 선교사는 생활비의 전체 규모를 교회에 알려야 하며, 그 총액이 한국교회 해외선교비 통일기준안(부록 참조)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비는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역비 전체결산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후원 선교사에게는 후원회 결성 혹은 선교단체 소속을 적극 권장하되, 그 후원회나 선교단체가 본 교회와의 비전과 사역에 부합해야 하며, 본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후원 선교사로 파송할 경우, 단독후원 수준 이상의 선교비 모금을 조건으로 한다. 이상의 조치는 선교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²³
- 1.3. 부분후원: 부분후원은 선교사의 생활비 1/2이하의 후원을 의미한다. 이 또한 생활비 전체 규모에 대한 선교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교회가 결정한다. 본 교회 협동선교사가 생활비를 위해 본 교회 후원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특별청원과 당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하며 월 싱200불로 제한한다.
- 1.4. 사역후원: 선교사의 청원에 의한, 사역만을 위한 후원을 의미한다. 본 교회 협동선교사 후원은 원칙적으로 사역후원이며, 월 싱200불을 원칙으로 한다. 본교회 교역자가 협동 선교사가 되었을 경우, 본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후원하며, 그 이후 계속 후원을 원할 경우, 재청원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연장지원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 연장 지원은 각 협동선교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정관리

- 2.1. 단독후원: 본 교회가 규정한 생활비 년12회, 생활비와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 년2회, 역시 동일 금액의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이것은 선교사(가정)의 생활비로서 상황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비는 보고의 의무가 없다. 현재 자녀교육비는 별도로 본 교회의 전임 목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추후 예장(통합) 기준 혹은 '한국 교회 해외선교비 통일기준안'을 적용하게 될 때에는 선교사의 자녀교육비는 생활비에 포함 될 것이다.
- 2.2. 주후원: 주후원의 총액은 본 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라 선교사마다 달리한다.
- 2.3. 사역후원: 사역의 내용에 따라 당회의 결의와 교회의 재정관리 질서를 따라 집행되며, 영수증 원본(부득이한 경우 사본도 가능)을 첨부한 결산보고서에 의해 완결된다. 협동 선교사는 정기

²³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는 후원액 모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가한다. 후원액이 부족하면 그 단체 소속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최종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재정으로 말미암은 시험(예: 사역에 전념치 못함, 재정의 오용, 선교지재산 소유권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적으로 사역 후원을 받는 선교사로서 계약기간에 따라 후원한다. 본 교회 선교사도 사역후원비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청원할 수 있으며, 교회는 교회의 예산과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원을 결정한다.

- 2.3.1. 사역비 중에는 사역을 위한 일상 경비도 포함한다(예:교통비, 수속비, 판공비, 답사비 등).
- 2.3.2. 광의의 선교 사역을 (1)선교사역(mission work), (2)선교사업(mission business), (3)사업선교(business mission)로 세분할 수 있다. '선교사역'은 선교를 위한 직접적인 의미의 사역이다. '선교사업'은 선교사역이 확장되어 사업적인 형태를 띤 것 혹은 선교사역을 위해 사업 형태가 필요할 때의 양태를 의미한다. '사업선교'는 선교보다는 사업이 우선된 것으로서 사업을 통하여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선교는 교회나 선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업적 관점에 접근한다. 따라서 사업선교는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선교와 선교사업의 분기점은 영리추구가 우선이냐 아니냐이다. 영리추구가 필수 구성요소일 때에는 사업선교로 분류한다. 사업선교 지원은 교회가 공적으로 광고하거나 추진하지 않으며, 개인목적헌금으로 제한한다.
- 2.4. 보험비: 교회는 선교사를 위하여 의료보험 및 상해 보험을 들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교사의 안정된 사역을 돕는다.
- 2.5. 감사: 각 선교사의 재정보고를 자료로 하여 선교부가 중심이 되고 재정부가 보조하는 구조로 연말에 감사하고, 선교부가 연말 당회에 보고한다.

IX. 선교지방문, 단기선교, 선교훈련

1. 선교지 방문

교회는 선교지 방문을 정례화하여 함께 하는 선교를 지향한다. 선교지 방문팀은 크게 선교 지도 그룹의 방문과 일반 성도의 방문으로 나뉜다. 방문지 선정은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형평에 맞게 골고루 방문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역의 연계성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다. 협동선교사의 사역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선교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협동선교사 사역지를 방문할 수 있다.

해외 방문은 사전에 당회의 허락을 받아해야 한다. 해외 방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선교부가 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기 때문이다.

2. 단기 선교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단기선교 지침에 따라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3. 선교훈련

World Outreach International(=WOI)에서 주최하는 "카이로스 선교훈련"(9주 과정 및 선교지 방문)을 우리 교회의 기본 선교훈련으로 하며, 목적에 따라 특별 선교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 실시한다. 2009년 카이로스 선교훈련은 영어로 실시되었다. 2010년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했으며, 2011년부터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WOI에서 head facilitator 훈련을 마친 선교부원을 중심으로 매년 싱가포르인교회 자체적인 facilitator 훈련을 통해,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이끌어갈 훈련 리더들을 세우고 있다.

X. 정책 제정 및 개정

2008.7.13. 선교정책 기초안을 당회에서 결의한 후, 향후 5개월 간 의견을 수렴키로 하다.

2008.12.25. 기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선교정책으로 당회가 결의하다.

2009.12.16. 1년간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여 소폭 개정을 당회가 결의하다.

2015.3.29 선교부검토후 개정안을당회에 제출하다.

XI. 부록

1. 2005년 해외선교비 통일 기준안

2005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5개 교단이 선교비 통일기준안을 합의하여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1인당 GNP에 따라서 세계를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생활비 지급기준을 만들었다. 1지역은 US\$ 50~1,099 로 가나, 감비아, 과테말라, 볼리비아, 중국, 파키스탄 등 76개국, 2지역은 US\$ 1,100~3,099로 그루지야, 러시아, 멕시코, 알바니아, 칠레, 필리핀 등 53개국, 3지역은 US\$ 3,100~4,099로 가봉, 브라질, 터기 등 11개국, 4지역은 US\$ 5,000~10,999로 그리스, 리비아, 바레인, 아르헨티나 등 13개국, 5지역은 US\$ 11,000 이상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등 28개국이다.

선교비 통일기준안

| 기혼/미혼 | US\$ | 1지역 \$1,100미만 | 2지역 \$1,100이상- 3,100미만 | 3지역 \$3,100이상- 5,000미만 | 4지역 \$5,000이상- 11,000미만 | 5지역 \$11,000이상 |
|---------|-------------------------------------|------------------|------------------------------|------------------------------|-------------------------------|-------------------|
| 선교사 2인 | | \$600 | \$660 | \$720 | \$780 | \$840 |
| 가족 1인 | 생활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 독신수당 | | \$200 | \$200 | \$200 | \$200 | \$200 |
| 선교사(가정) | 주택비 | \$350 | \$400 | \$450 | \$500 | \$550 |
| 독신 | | \$200 | \$230 | \$260 | \$290 | \$320 |
| 선교사(가정) | 활동비 | \$300 | \$300 | \$300 | \$300 | \$300 |
| 독신 | | \$200 | \$200 | \$200 | \$200 | \$200 |
| 선교사 2인 | 은퇴금 | \$130 | \$130 | \$130 | \$130 | \$130 |
| 독신 | | \$80 | \$80 | \$80 | \$80 | \$80 |
| 선교사(가정) | 근속비 | \$50 | \$50 | \$50 | \$50 | \$50 |
| 독신 | | \$25 | \$25 | \$25 | \$25 | \$25 |
| (수습2년) | 언어 | \$300 | \$300 | \$300 | \$300 | \$300 |
| 교육비 | 유초-\$100 | 중고-\$150 | | 대학-\$200 | | |
| 근속비 | 2년 근속 후 연 \$50, 근속비는 \$500을 초과하지 않음 | | | | | |
| 상여금 | 생활비 300% | | | | | |
| 휴양비 | 생활비 30% | | | | | |

예시표 (4인 기준: 부부+초등1명+중고1명)

| | US\$ | 1지역 \$1,100미만 | 2지역 \$1,100이상- 3,100미만 | 3지역 \$3,100이상- 5,000미만 | 4지역 \$5,000이상- 11,000미만 | 5지역 \$11,000이상 |
|-------------------------------------|------|------------------|------------------------------|------------------------------|-------------------------------|-------------------|
| 선교사 2인 + 초등 1인 + 중고등 1인 | 생활비 | \$600 | \$660 | \$720 | \$780 | \$840 |
| | | \$200 | \$200 | \$200 | \$200 | \$200 |
| | 교육비 | \$250 | \$250 | \$250 | \$250 | \$250 |
| | 주택비 | \$350 | \$400 | \$450 | \$500 | \$550 |
| | 활동비 | \$300 | \$300 | \$300 | \$300 | \$300 |
| | 상여금 | \$200 | \$215 | \$230 | \$245 | \$260 |
| | 은퇴금 | \$130 | \$130 | \$130 | \$130 | \$130 |
| 수습(2년) 언어 | 사역비 | \$300 | \$300 | \$300 | \$300 | \$300 |
| 비상금(의료비) | | \$50 | \$50 | \$50 | \$50 | \$50 |
| (연1회) 생활비 30% | 휴양 | \$20 | \$22 | \$23 | \$25 | \$26 |
| 합 계 | (월) | \$2,400 | \$2,527 | \$2,653 | \$2,780 | \$2,906 |
| | (년) | \$28,800 | \$30,318 | \$31,836 | \$33,354 | \$34,872 |